

시조 속에 나타난 가족과 가족윤리

-16·17세기 훈민시조를 중심으로-

김상진*

<차례>

- 1. 시작하는 말
- 2. 시조에 나타난 가족관계
 - 2.1 부모와 자녀
 - 2.2 형과 아우
 - 2.3 남편과 아내
- 3. 시조에 나타난 가족윤리
 - 3.1 효행의 강조
 - 3.2 공경과 화합
- 4. 맺음말

1. 시작하는 말

조선시대는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였다. 부권을 중심으로 가족이 규합되어, 거기에 복종하고 따름으로써 가족의 틀을 유지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고대 이후 양계적 가족제도를 유지해 오던 것이 조선에 접어들며

부계적인 가족제도로 변화하며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의 문화가 보다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²⁾ 여기에는 유교사상 또한 한 몫 하게 된다. 즉 가부장적 제도가 확립되어 ‘가문’이 중시되며 가족 또한 가문 속에 편입되게끔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서 지켜야할 도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다보니 이 시기의 시대인은 각자의 개성보다는 문종과 가문의 일원으로, 가족의 이데올로기 속에 개인을 편입시킴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았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뒤로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다.³⁾

#2184 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忠孝 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와 다르겠느냐
 마음에 하고자하니 十載 皇皇 恨노라.⁴⁾
 (권호문, <한거십팔곡> 19-1)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松巖 權好文(1532~1587)이 지은 <閑居十八曲>

창출을 위한 기초단위인 ‘축소된 공적영역’일 수 있다 (김미영, 『‘陰’에 부과된 私적 특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주자학의 가족윤리를 중심으로-』, 『철학』 72권, 한국철학회, 2002. 86~87쪽).

2)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20~139쪽.

3) 금장태 교수는, 유교사회에서의 가족의식에 대하여 논하며 개인적인 修身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가족관계의 구조도 그 기준이 제일 뒷사람이나 웃어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고 설명한다. 율곡의 『擊蒙要訣』, 『事親章』의 내용을 예로 들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자신이 중요하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9. 85~86쪽).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개인보다 가문을 중시한다는 본고의 논지와 일견 어긋나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가문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철학적 자아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개체성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회적 개념으로서 가족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뒤로 함을 의미한다.

4) 논문에 인용된 시조 및 작품번호는 박을수편, 『한국시조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의 표기를 따랐다.

* 한양대학교

1) 서양의 가족이 ‘사적이며 휴식 공간’으로서의 개념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 한 동아시아에서의 가족은 ‘선조에 대한 제사 및 후손을 교화하는 장소’이며, 사회질서

가운데 첫 수이다. 권호문은 출사에 대한 뜻이 별로 없이, 평생 處士로 살기를 원하였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출사에 뜻을 둔 것은 그것이 사대부로서의 책무이며 모부인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의 시조에서 권호문은 자식된 도리로 벼슬길에 나서야하는 자신의 심경을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소망보다 가족이나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책무가 보다 중요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의 문학작품 가운데는 가정이나 가족을 주제로 삼아 형상화한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을 다수 접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동화로 더 익숙한 <콩쥐팍쥐전>이나 <장화홍련전> 등이 대표적인 가정소설에 포함되고, <홍길동전>이나 판소리계 소설인 <홍부전> 등에서도 가정에서의 문제가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조선후기에는 <明珠寶月聘>, <尹河鄭三門聚錄>, <劉李兩門錄> 등의 가문소설이 여러 작품 등장하였다. 이러한 고전소설이 가정이나 가문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테마로 삼는다면, 시조에서는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 간에 지켜야할 의무나 역할 등의 가족윤리를 노래하는 데 주력한다.

시조는 성리학과 함께 발전한 장르이다. 즉 성리학의 이념을 생활의 토대로 삼고 있는 사대부 계층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장르이다. 따라서 유교의 덕목을 담은 사서삼경의 가르침을 존중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현대인들에게도 자주 인용되는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즉 사대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는 세상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신과 제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조 자체가 효용성이 강한 문학 장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훈민시조는 문학의 효용성이 특히 강조된다.⁵⁾ ‘훈민’이라는 명칭으로도 알 수 있듯이, 창작의 목적 자체가 백성의 훈도에 있는 것인 만큼 효용이 작품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 훈민시조가 주로 창작된 시기는 16~17세기로, 이 시기는 조선조에 성리학의 이념이 확립되던 시기이기도 하다.⁶⁾ 따라서 그런 만큼 사대부 계층이 아닌 일반백성들 또한 성리학이 지향하는 법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다. 훈민시조는 이러한 당대적 상황이 창작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훈민시조를 창작한 주세붕, 정철, 박인로, 박선장, 김상용 등의 작자를 보면 이들은 모두 목민관을 지낸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⁷⁾ 목민관 시절에 훈민시조를 창작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점에 유념하며, 16~17세기 훈민시

-
- 5) 훈민시조의 두드러진 목적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조운제의 『한국시가사강』(을유문화사, 1954, 267쪽)에서는 ‘의식적으로 詩歌를 사회 教化에 두어서 너무 교훈적’이라고 지적하였고, 박성익의 『송강·노계·고산의 시가문학』(현암사, 1968, 188~189쪽)에서는 ‘백성들을 教化함에는 적지 않은 공로가 있을 것이로되 다만 노래로 보아서는 그다지 문학적 가치를 일컬을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윤성근의 『훈민시조 연구』(『한메 김영기선생 고회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1, 351쪽)에서는 훈민시조의 내용을 일컬어 ‘양반에게는 긍정적, 평민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했고, 또 안정된 사회에서는 질서유지에 공헌이 있는 반면,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현실파악에 방해가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훈민시조는 강호시조와 함께 사대부시조의 두 흐름 가운데 하나로, 교훈문학으로서 마땅한 평가를 기대하는 견해 또한 제기된다(조태흠, 『유교이념의 시적 변용고-훈민시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7집, 문창어문학회, 1990, 349~363쪽).
- 6)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어문학』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493~494쪽)에서는, 조선 전기는 유교이념으로써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백성을 교화할 선비의 양성이 보다 필요했던 시기로서, 시조로써 유교 윤리를 가르칠만한 사회계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민시조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 7) 이들의 목민관 경력을 보면 주세붕은 풍기군수,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 박선장은 예산현감을, 김상용은 상주목사와 정주목사를 지냈으며, 박인로는 수군만호를 지냈다(조태흠, 『훈민시조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89, 36쪽).
- 8) 예컨대 주세붕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각각 <오륜가>와 <훈민가>를 지었다. 박선장은 58세 되던 해에 향리에 龜灣書堂을 짓고 그곳 蒙士들을 깨우치기 위해, 박인로는 임병양란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머물며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하려는 목적으로 훈민시조를 지었다(김상진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89~90, 99~102쪽). 김상용의 <오륜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창작동기를 알 수 없으나 임란 이후 흉흉해가는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용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이종진, 김상용론, 『속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166~191쪽 참조).

조를 중심으로 시조 속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과 가족윤리를 살펴기로 한다.

2. 시조에 나타난 가족 관계

오륜의 질서는 인간의 삶이 보다 규범적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윤리규칙이다. 이러한 오륜에는 가족 간의 윤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세 가지인데, 이는 사회의 질서규범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가족의 질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2.1 부모와 자녀

조선사회는 인간의 덕목 가운데서 충과 효가 강조되던 시기이다. 그래서 가족윤리를 노래한 일련의 시조에서도 자식의 효행을 노래한 작품들이 먼저 주목된다.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는 위대한 존재이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는 가장 무력한 것이 또한 인간이라고 한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발걸음을 떼어 놓는 데까지도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혼자 음식을 먹는 데도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그 밖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힘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이다. 그래서 시조에서는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의 은혜를 자주 노래하게 된다.

#2601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母웃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났다
 이 德을 감히려 하니 하늘 7이 업스랴다.
 (주세붕, <오륜가> 6-2)

#2599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하늘 가튼 7 업슨 은덕을 어디 다혀 갑스오리
 (정철, <훈민가> 16-1 '父義母慈')

#2601과 #2599는 각각 周世鵬(1495~1594)과 松江 鄭澈(1536~1593)의 작품이다. 작자를 달리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주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초장은 표현까지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주세붕이 '부모'라고 일컫는 중장 첫구가 정철의 작품에서는 '두 분'으로 지칭되었다든지, '내 몸이 업실났다'라고 하는 대신 '이 몸이 살았을까'라고 하여 동일한 의미를 대명사를 사용한다든지 표현방법만 바꾸어 노래한 정도이다. 중장에서 주세붕의 시조에서는 덕을 갚으려고 하면서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덕을 알았다고 하고, 정철의 시조에서는 하늘같은 은덕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부모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노래하되, 그 은덕의 깨달음에 차서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작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조의 면모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이들 시조가 문학적 감흥, 즉 개인의 정서를 시조로써 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오륜의 질서에 기초하여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강조하기 위함이 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父生母育之恩'을 노래한 위의 두 작품에서는 자신의 현존을 가능케 한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끝없는 하늘에 비유하며 그 위대함을 극대화한다.

부생모육지은을 주지로 삼은 것은 朴善長(1555~1617)이나 金尙容(1570~1637), 蘆溪 朴仁老(1561~1642) 등의 <오륜가>에서도 역시 등장한다.⁹⁾ 다음은 박인로의 <오륜가> 가운데 두 수이다.

9) 김상용의 <오륜가> 또한 "아버이 子息, 스이 하늘 삼긴 至親이라/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설소냐/鳥島도 反哺를 하니 父母 孝道호여라" '부자'를 노래한 여타의 훈민시조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부생모육지은을 노래한다. 박선장의 <오륜가>에서

#2603 아버지는 나고 어머니는 키우시니
 昊天罔極이라 갑홀 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 다한가 흐노라
 (박인로, 〈오륜가〉 ‘부자유친’ 5-1)

#2295 世上 사름들아 父母 恩德 아느산다
 父母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나
 生死 葬祭에 예로써 終始 갖게 섬겨서라.
 (박인로, 〈오륜가〉 ‘부자유친’ 5-4)

총 25수로 이루어진 박인로의 〈오륜가〉는 모두 다섯 수에 걸쳐 ‘父子有親’을 노래한다. 위의 시조는 그 가운데 첫 수와 넷째 수이다. 위에 있는 #2603의 초장은 앞서 살핀 시조 #2601, #2599의 초장과 거의 흡사하다. 종장과 종장 또한 앞의 두 시조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만 표현의 문제일 뿐,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의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昊天罔極과 순임금의 終身誠孝 등의 故事를 인용하였지만 이 또한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 하며 평생을 두고 갚아도 부족하기만한 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박인로 〈오륜가〉의 ‘부자유친’은 다섯 수에 걸쳐 노래한 연시조인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첫수인 #2603에서는 이처럼 부생모욕의 은혜를 노래하고 다음 작품에서는 이러한 첫수의 詩想을 이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誠孝를 다할 것을 노래하고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誠孝의 구체적인 방법을 노래한다.¹⁰⁾ 세 수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는 “寸마도 못훈 푸리 봄 이슬 마즌 後에/넙 넙고 즐기 기러 밤나즈로 부러났다/이 恩惠 하 罔極하니 가풀 줄을 물너라”고 하여, 비유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풀’에 견주어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10) 人生 百歲 中에 疾病이 다 이시니/父母를 섬기다 몇 회를 섬길넉고/아마도 못 다 홀 誠孝를 일즉 버퍼 보렷로라 (父子有親, 5-2), 父母 섬기기를 至誠으로 섬기리라/ 鷄鳴에 監漱하고 懷寒을 못즈오며/날마다 侍側奉養을 沒身 不衰 흐노리라 (부자유

報恩을 스스로 다짐하였다면, 넷째 수인 #2295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세상 사람에게 향해 발화한다. 앞선 세 수의 시조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다가 넷째 수에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외친다는 것은 개인적 감회가 그만큼 더 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만의 다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의 지극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효심을 독려함으로써 그 간절함을 표현한다. #2295에서는 또한 살아서는 물론 죽은 이후의 장례와 제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길 것을 노래함으로써 효도에는 끝이 없음을 나타낸다.¹¹⁾ 또한 이는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대비를 이루며,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훈민시조가 인간의 윤리도덕에 대한 규율을 노래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는 만큼 지금까지 살펴 본 일련의 시조에서는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님께 행해야 할 효행을 노래한다. 그러나 훈민시조가 아닌 여타의 시조에서는 부모를 향한 애뜻한 감성을 노래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박인로의 〈早紅柿歌〉 3수 가운데 첫 수이다.

#1637 盤中 潮紅 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柚子는 아니라도 품엄 즉 흐다마는
 품어가 반기 리 업슬시 글로 설워 흐노이다.
 (박인로, 〈조홍시가〉 3-1)

이 시조는 漢陰 李德馨(1561~1613)의 집을 방문하여, 잘 익은 홍시를 보고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홍시는 가을철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값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며 유자처럼 깊은 향을 지닌 과일도 아니다. 이렇듯 크게 대단하지도 않은

진, 5-3)

11) 『論語』, 爲政: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참조.

흥시를 보고 떠나가신 부모님의 생각으로 감상에 빠져든다는 점에서 화자의 설움은 더욱 애잔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오륜가>에서 노래한 효는 의무와 책무의 성향이 강한 것이라면, 위의 시조에서는 감성적인 면이 부각된다. 한미한 시골 양반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두 아우를 먼저 여의는가 하면 아들을 먼저 잃기도 하는 등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¹²⁾ 이렇듯 불행한 가족사를 안고 있는 그였기에, 붉은 감 하나를 보고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 짓는다.

부모님을 향한 감성어린 마음은 다음의 시조에서도 진하게 묻어난다.

#4444 하늘님이 하늘님이 비는 뜻 아옵소서
 惟一老人 救濟救濟 흐옵소서
 언제께 老親을 피시고 樂天終老 하오릿고
 (정광천, <병중술회가> 3-3)

洛涯 鄭光天(1553~1594)이 지은 <病中述懷歌> 3수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寒剛 鄭述(1543~1620)의 문인으로 알려진 정광천은 달성 泗水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섬김이 남달랐던 그는 평생 『小學』의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한다. 효성이 극진했던 그가 나이 사십에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먼저 저 세상으로 가야하는 불효를 저지를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병중에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못내 통탄하고 있다.

박인로의 <조흥시가>가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노래하였다면, <병중술회가>는 그와는 반대로 부모님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하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정 반대의 입장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부모의 은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만큼 부모님께 효행을 할 것과 함께, 그런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노래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노래한다.

2.2 형과 아우

형제를 두고 ‘同氣’라고 일컫는다. 즉 같은 기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부모의 기운을 함께 받고 태어났다는 말이다. 동기간의 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꼽는다면 신라시대 郎僧인 月明師가 지은 향가 <祭忘妹歌>를 떠올릴 수 있다. <제망매가>에서 월명사는 떠나간 누이의 사십구재를 맞아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염원함으로써 혈육을 잃은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다. 이렇듯 애뜻한 존재가 형제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좀 더 받으려 은근한 시샘을 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것이 형제이다. 그래서 훈민시조에서는 이러한 형제의 우애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곤 한다.

#4600 兄님 자신 저줄 내조쳐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야
 兄弟 不和不和 개 도티라 흐리라.
 (주세붕, <오륜가> 6-5)

#4603 형아 아우야 네 슬흘 만져 보아
 뉘손디 타나관티 양조차 ㅈ튼손다.
 흐 젓먹고 길러 나이서 닷먹음을 먹디 마라.
 (정철, <훈민가>, 16-3 兄友弟恭)

12) 아들이 효성심의 발로로 예종과 안순왕후의 능인 昌陵의 참봉을 지낸 것 때문에 집안의 벼슬이 오랫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동생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비교적 오래 살았다고 전해진다.

#1493 문져 나니 後에 나니 次序야 다룰지라도
 압 뒤혜 들너서 한 저즈로 기러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라면 禽獸마도 못흐리.
(박선장, 〈오륜가〉 8-4 兄弟)

#4607 兄弟 두 몸이나 一氣로 논화시니
人間的 貴훈 거시 이 外에 또 잇는가
갑 두고 못 어들 거슨 이 卍인가 흐노라.
(김상용, 〈오륜가〉 5-4 兄弟之倫)

#4600은 초, 중, 종장의 화자를 모두 달리함으로써 형제의 다짐과 함께 화자로 등장한 작자의 훈계가 따른다. 주세붕의 시조와 달리 #4603은 작자인 정철이 작중화자로 등장하여 형제 모두에게 지침을 내린다. 발화의 양상은 다르지만, 두 작품 및 박선장의 #1493까지 세 작품 모두 형제의 우애가 돈독해야 함의 근거를 ‘한 젓’을 먹고 자란 한 어머니의 자식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각각의 작품을 보면 #4600의 초장은 아우의 발화로 시작된다. 형님 자신 젓을 자신이 좇아 먹는다는 진술로써, 자신이 형보다 나중이며, 젓을 좇아 먹듯 형님의 행동거지를 좇겠다는 다짐을 느낄 수 있다. 이어 중장에서 형은 그런 아우를 향해 부모의 내리사랑을 이야기하며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서 형으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초장과 중장에서 형제가 서로 화목해야 함을 노래한 작자는 중장에서 직접 화자로 등장하여, 한 부모의 형제로 태어나서 서로 불화한 것을 개, 돼지에 비유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님을 역설한다.

정철의 시조인 #4603에서는 작자가 작중화자로 등장하여, 초장에서 형과 아우를 함께 호명하며 명령의 어법으로 발화한다. 주세붕의 시조가 형과 아우를 시적 화자로 등장시켜 서로의 우애를 다짐하게끔 한 것과는 달리 정철의 시조는 스스로가 화자가 되어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 정철의 〈훈민가〉는 그가 강원도 목민관으로 있으면서 그곳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노래이다. 따라서 #4603의 시조에서 정철은 목민관의 입장에서 강원도 백성들을 향하여 동기간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형제간에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한 어머니의 젓을 먹고 자랐을 뿐 아니라, 그 모습조차 서로 닮아있는 것이 형제이다. 이는 요컨대 형제는 같은 부모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동기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형제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생의 차서를 거론하며 시작한 #1493 역시 화자의 주지는 ‘한 젓을 먹고 자란 동기’라는데 놓인다. 동기라는 사실 앞에서 차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유교적 인간관에서는 長幼의 질서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차서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라고 함으로써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할 것을 권면한다. #4607 또한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다음 시조에서도 동기로서의 형제를 노래하지만 개인적인 정서를 발화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1253 同氣로 셋 몸 되야 몸 가치 지너다가
두 아은 어디 가서 도라올 줄 모르논고
날마다 夕陽 門外에 한숨 겨워 흐노라.
(박인로, 〈오륜가〉 ‘兄弟有愛’ 5-4)

박인로의 〈오륜가〉는 형제의 도리에 대하여 ‘兄弟有愛’라는 부제를 달고 다섯 수의 시조를 지었다. #1253은 그 가운데 넷째 수이다. 훈민시조가 효용성이 두드러지던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의 시조에서 박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을 노래한다.¹³⁾ 삼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13) 박인로 〈오륜가〉의 ‘형제유애’의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여타의 훈민시조와 마찬가지로 同氣로서의 화목함을 강조하였고, 제3수는 돈독한 우애의 구체적인 방법을 노래한다. 제5수에는 형제를 잃고 홀로 남은 슬픔을 노래한다. 즉 앞의 세 수에서 훈민시조 일반의 관념을 노래했다면, 제4수 및 제5수에서는 형제를 향한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한다.

박인로는 두 동생을 먼저 잃는 아픔을 겪었다. 위의 시조는 그러한 개인의 아픔을 시조로 엮은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동기'의 운명을 강조한다. 한 부모의 자식, 말하자면 한 나무의 가지로 태어났건만 가는 것은 함께 하지 못하고 두 가지는 먼저 떨어지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게 홀로 남은 자의 서글픔을 노래함으로써 형제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23 남편과 아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첫 단계는 부부이다. 낯선 남녀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으며 가정을 이뤄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다. 五倫의 질서에서는 특히 부부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는 부부가 있음으로 해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4 君臣은 大義 잇고 父子는 至親이며
 長幼有序의 兄弟 들고 朋友有信의 師生 드네
 아마도 夫婦一倫은 五倫之本이라 엇디 無別호올소냐.
 (황윤석, <목주잡가> 28-21)

위의 시조는 18세기의 작품으로, 黃胤錫(1729~1791)의 <木州雜歌> 제21수이다. 여기서는 오종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노래하는 것으로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친함, 장유의 질서 및 봉우의 믿음과 함께 부부의 분별을 노래한다. 그런데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는 '五倫之本'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족의 형성이 부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나 부부의 윤리는 모든 인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부자유리를 주제로 한 시조에서 '부생모육지은'을 주지로 삼고, 형제윤리를 주제로 한 시조에서 한 목소리로 '同氣愛'를 노래한 것과 달리, 부부윤리를 노래한 시조는 내용에 따라 세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는 '五倫之

本'으로서의 부부를 노래한 경우이다. 앞서 살핀 #454와 함께 다음의 시조에서도 부부가 오륜의 근본임을 노래한다.¹⁴⁾

#1854 夫婦ㅣ 이신 後에 父子 兄弟 삼겨시니
 夫婦곳 아니면 五倫이 가질소냐
 이 中에 生民이 비롯호니 夫婦 크다 호로라.
 (박인로, <오륜가> '夫婦有別' 5-1)

일반적인 훈민시조와 다르게 총 25수로 이루어진 박인로의 <오륜가>는 오륜의 각 조목을 대략 다섯 수씩 노래한다. 제1수에서 5수로 진행될수록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개인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제1수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보편의 윤리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한 제1수에서 화자는 부부가 오륜의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가 근간이 되어 부자와 형제의 인연을 만들어져 가족을 이루고, 이것이 근본이 되어 백성에 이르게 됨을 노래하였다. 결국 박인로에게 있어서 부부의 인연은 가족을 넘어 국가를 이루는 근본으로까지 확장된다. 황윤석의 #454 또한 부부를 제외한 네 관계에서는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의무만을 이야기하지만, 부부는 부부유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것이 오륜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황윤석이 부부의 윤리를 특히 강조한 것은 부부가 있는 연후에야 부자, 형제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부의 공경함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부부가 오륜의 근본으로 가

14) 『周易』 「序卦傳」(下篇)에서는 “천지가 있는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가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연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연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연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는 연후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는 연후에 예의를 둘 곳이 있다”고 하며 부부의 도가 만물의 근원임과 항구한 것임을 설명한다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夫婦之道不可以不久也. 故受之以恒 恒者久也).

족 형성의 토대가 되지만, 부부란 낯선 남성과 여성이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부자와 형제는 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만큼 인위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풀 수 없다. 하지만 부부는 그렇지 못하다. 가족의 이름으로 엮어지지만 부부는 언제든지 낯선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4499 혼 몸 들헤 눈화 부부를 삼기실사
이신 제 흠피 늙고 주그면 혼 더 간다
어디서 망녕의 써시 눈 흘기려 호느뇨.
(정철, <훈민가> 16-5 ‘夫婦有恩’)

#1955 사람 내실 적의 夫婦 갓게 삼겨시니
天定 配匹이라 夫婦 갓치 重홀 소나
百年을 아적 삼아 如鼓瑟琴 호 로라.
(박인로, <오륜가> ‘夫婦有別’ 5-2)

#1325 두 姓이 혼 더 모다 함피 늘거 죽자 호니
百年 情好야 이에서 더라마는
그러도 恭敬홀 줄 모르면 雌鳩 하니 인느냐.
(박선장, <오륜가> 8-3 夫婦)

#1851 夫婦라 희은 거시 늙으로 되어 이서
如鼓瑟琴호면 귀 아니 즐거오나
그러코 恭敬곳 아니면 卽同禽獸 호리라.
(김상용, <오륜가> 5-3 夫婦之倫)

위의 시조들은 모두 부부의 공경과 화목을 강조한다. 특히 정철의 시조 #4499에서는 두 몸이 만나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몸’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둘로 나뉘어있다가 부부가 된다고 하여 부부의 一心 同體를 강조한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제라도 개체로 분리되어

각자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지만, 둘로 나뉜 한 몸이 ‘부부’의 이름으로 합일되었다는 것은 부부는 결코 갈라설 수 없는 관계임을 그만큼 강조하게 된다. 원래 한 몸이었으나 나뉘어졌다가 만난 것이 부부이니 서로의 反目이란 있을 수 없이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함을 노래한다.

박인로의 <오륜가> 가운데 한 수인 #1955에서 보이는 부부의 결합 또한 #4499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 몸이 둘로 나뉜 것은 아니지만 부부의 인연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맺어진 것이라 하여, 그것이 인륜이 아닌 천륜이라고 강조한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 만큼 사람이 함부로 그 인연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는 것이니 그 결속력은 그만큼 단단해 진다. #4499에서 삶과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평생 동안 함께 해야함을 노래했다면, #1955에서는 ‘百年을 아적 삼아’란 숫자와 아침의 상징을 차용하여, 역시 평생을 서로 존중하며 금슬을 타듯 부부가 화목할 것을 노래한다.

이에 반해, 박선장과 김상용의 시조인 #1325와 #1851에 나타난 부부의 결합은 보다 보편적이다. 두 姓이 만났다는가, 남이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실적인 부부의 결합을 일컫는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 또한 일치한다. 다만 #4499와 #1955의 시조에서 부부가 존중해야 함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하는 ‘당위’로 규정짓고 있다면 #1325와 #1851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의무’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이런 차이는 전자와 후자의 종장으로서 명확해진다. 즉 #4499와 #1955에서는 서로 화목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반해, #1325와 #1851는, 화목하지 못한 경우를 禽獸나 雌鳩와 같은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 사람을 짐승에 견준다는 것은 모욕적일 수도 있고 일종의 위협일 수도 있다. 요컨대 전자의 작품들이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워 마땅히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의 작품들에서는 당위성이 결여된 대신 일종의 벌칙을 두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윤리를 노래한 시조의 셋째 유형은 부부의 도리, 특히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노래한 경우이다.

#3785 지아비 반 갈나 간 디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나 다르실가.
(주세붕, <오륜가> 6-4)

#1863 夫婦 삼길 적의 하 重케 삼겨시니
夫唱婦隨하야 一家 天地 和히리라
날마다 學案齊眉을 孟光 갓게 히여라.
(박인로, <오륜가> '夫婦有別' 5-4)

위의 두 시조는 『後漢書』 「梁鴻傳」에서 유래된 '學案齊眉'의 고사를 인용하여 시조화한 작품이다. 두 작품은 부부 가운데서 아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노래한다. 즉 아내가 남편을 정중하게 대하고 공경함으로써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이치를 노래한 것이다. 이처럼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를 노래함으로써 서로 간에 화목할 것을 권면한다.

#3785에서는 일상에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아내로서 해야 할 행동지침을 노래한다. 작품의 초·중장은 '學案齊眉'의 고사를 그대로 풀어쓴 것이며 종장에서 화자의 목소리가 들어갔다.¹⁵⁾ 순전하게 내용을 살핀다면, 지아비가 밥을 갈러 간다고 한 것은 가정을 위한 남편의 경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남편은 마땅히 가족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남편을 아내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

경해야 하는 가르침을 담았다. #1863은 박인로의 <오륜가> '부부유별'의 넷째 수이다. 주세붕의 시조가 지아비와 지어미로서의 책무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박인로의 시조에서는 부부의 끈끈한 인연에 초점을 맞춘다. 서로에게 귀중한 만남이기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공경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가족의 화목을 도모한다고 보았다.¹⁶⁾

3. 시조에 나타난 가족윤리

훈민시조를 중심으로 한 시조에 나타난 가족관계는 부자, 형제, 부부의 세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지지만, 부자와 형제가 혈육관계인 것과는 달리 부부는 낯선 타인의 만남이다.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가 존재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부는 자녀로 말미암아 혈육을 공유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우러지게 된다. 비록 가족의 이름으로 묶이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가족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가 등장하는 일련의 시조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인데, 이를 위해서 일련의 행동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의 지침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항목화 할 수 있다.

16) 박인로 <오륜가> '부부유별' 셋째 수에서는 아내를 지극히 공경했다는 중국 판나라 卻缺의 고사를 인용하여 "夫婦을 重타흔들 情만 重케 가질 것가/禮別 업시 居處히며 恭敬 업시 조홀소나/一生에 敬待如賓을 冀缺 갖치 히로리라."고 노래한다. 즉 박인로는 '부부유별'의 첫수에서 부부가 오륜의 근본임을 노래하고 이어 둘째 수에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의 공경을 노래한다. 이어 셋째 수에서는 남편의 공경을, 넷째 수에서는 아내의 공경을 순차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15) 신연우, 주세붕에서 정철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미, 『은지논총』, 4집, 은지학회, 1998, 40쪽

3.1 효행의 강조

조선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면 ‘忠孝’란 단어가 자동적으로 뒤따를 만큼, 조선시대에는 충과 함께 효가 강조되었다. 가족을 노래한 시조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효의 강조이다. 부자관계의 윤리를 노래한 시조는 거의 한결같이 ‘父生母育’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자식으로서의 효행을 다짐하거나,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베푸는 慈愛를 노래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¹⁷⁾ 이는 시조의 지향이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上命下服’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부자관계에서 보이는 上命下服의 모습이 낮은 지위에 있는 계층의 인격적 폄하는 아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유교적 원리에 근거한다. 즉 우주를 이루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는 君臣, 父子, 夫婦, 兄弟, 長幼로 나타나고, 각각의 관계는 서로 간에 종적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계에서 땅의 위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과 종적 관계에서 하늘의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함을 자연의 理法을 따르는 것으로 여겼다. 그 가운데서도 군신과 더불어 부자의 관계는 충효의 강조와 함께 가장 확고한 종적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관계를 노래한 시조에서 효행의 강조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 이외에도, 정철의 〈훈민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에서는 자식의 효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2729 아버지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 흐여라
 디나간 後면 애똥다 엇디 흐리
 평상에 고타 못홀 이리 이뿐인가 흐노라.
 (정철, 〈훈민가〉 16-4 ‘子孝’)

‘子孝’라는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 시조 또한 자식의 효도를 독려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으로 섬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주지로 삼고 있다. 세상의 진리는 엄청나고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말 가운데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자주 망각해버리곤 한다. 위의 시조는 이렇듯,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다시금 그 효행을 독려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시조에서 효행을 강조하는 것은 부자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형제관계를 노래한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형제의 우애를 노래한 시조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한 젓’을 먹고 자란 ‘同氣’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인 것이다. 형제가 다툼을 일삼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형제는 한 집안에 태어나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형제는 인간적인 밀접함 또한 생기게 된다. 집안에는 물론 형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함께 하겠지만, 형제는 부자나 祖孫 관계와는 달리 비슷한 年輩의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족 관계보다 긴밀한, 정신적 유대감을 나눌 수 있다. 형제가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훈민시조에 등장하는 형제관계는 대부분 ‘한 어머니의 젓을 먹고 자란 자식’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 시조가 그것의 효용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둔 훈민시조라는 점이다. 즉 형제가 화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부모에 대

17) 정철의 〈훈민가〉 제7수에서 “네 아들 孝經 닦더니 어도록 비환느니/내 아들 小學은 모리면 ㅁ출로다/어니 제 이 두 글 비화 어딜거든 보려뇨”라고 하며 부모로써 자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이것은 부모의 慈愛가 아닌 사회규범적인 의미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慈愛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미 충분히 넘쳐서 굳이 시조로써 노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 효성심'이라는 가치로 설명한 것은, 그랬을 때 그 효용성이 가장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명한 것(天命之謂性)으로 보고 仁義禮智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 규정한다.¹⁸⁾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교를 정치이념, 혹은 학문적 바탕으로만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조선사회에서는 유학이 법과 제도, 정치와 문화, 문물, 이념 등에 걸쳐 생활 전반을 규정하였다.¹⁹⁾ 형제우애를 노래하며 '한 젓'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유학 정신을 추구하여 개별화된 자신의 정서보다는 가문이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표현이다.

32 공경과 화합

훈민시조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노래한 시조에서 강조하는 윤리 가운데 또 하나는 공경의 마음과 화합의 정신이다. 이는 부부의 관계를 노래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부부는 혈육이 아닌 남남의 만남이지만, 부부로 부터 가족이 형성되는 만큼 가족의 기본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윤리는 부자, 형제와는 차별된다. 가족의 기본을 이루며 가족의 이름으로 묶여 살지만 부부는 서로 남이며, 특히 아내는 가족 가운데서 홀로 다른 성씨를 사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내의 성씨가 혼인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아내의 가문이 존중받는 느낌도 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자녀들 모두 同姓인 상황에서 혼자 異姓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질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부부를 일컬어 '무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촌수도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 일심동체의 사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촌수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관계란 의미도 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순간에 아무 것도 아닌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항상 상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부부의 윤리를 노래한 시조에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통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 아내의 모습과 변별됨으로써 다소의 의문을 가지게도 한다. 예컨대 '三從之道'나 '男尊女卑', '七去之惡' 등과 같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용어에는, 암울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던 당시 여성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선시대 여성의 정황은 문학 작품 속에서도 그 모습이 발견된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하는 <시집살이요> 및 규방 가사에 포함되는 몇몇 작품들이 바로 그것이다.²⁰⁾

그러나 유교문화권에서 父權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 사람은 어머니였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등장하여 유교가 여성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였다는 유교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지적하기도 한다.²¹⁾ 그런가하면, 조선후기에 비하여 고려나 조선 전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렸음을 근거로, 조선후기 민요나 여성 가사 등에서 묘사되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은 그것이 가혹해서라기보다는 그

18) 최석만, 『The Problem of Social Order in Confucianism (유교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문제)』,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62~63쪽.

19) 위의 논문, 59~61쪽.

20)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83~115쪽)에서는 <시집살이노래〉를 대상으로 전통사회에서 여성, 특히 시집간 여성에게 가족적, 사회적 정체성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1) 이에 대한 연구로는, Water H Slot, 『Psychocultural Dynamics within the Confucian Family』, 『Confucianism and the Family』와 조한혜정,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제2집 등이 있다 (김미영,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三從之道'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3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48~49쪽에서 인용함).

이전의 삶²²⁾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²³⁾

이러한 견해는 유교가 여성에게는 매우 불평등한 이념이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상당부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이념이나, 조선 전기와 그 이전사회가 여성에게 자유로웠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周易』 「序卦傳」에서 부부가 도의 근원임을 설명하지만,²⁴⁾ 한편으로 유교의 남녀 차별 문화가 『周易』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주역』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天理로 설명한다는 것이다.²⁵⁾ 그래서 실제로는 남녀, 또는 부부간에는 조화와 상호존중을 명분으로 내세운 차별과 구별의 윤리가 동시에 내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⁶⁾ 이렇듯 당시의 여성, 혹은 아내가 사회적으로나 가족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한다. 다만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시조에 나타난 아내의 존숭이 유교사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님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조에 나타난 아내의 모습을 당대의 일반적인 아내의 실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시조는 교화의 목적이 강한 것으로, 올바른 가족상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오류의 근본으로,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부부로부터 비롯된든지, 서로의 공경과 화합을 다지는 것은 효용적 가치를 주로 한 것이지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²⁷⁾ 더욱이 부부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고 二姓의 만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달리 부부의 화목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훈민시조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맺음말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문학작품을 ‘미적 구상물’로보다는 ‘도의 구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만큼 조선의 유학자들은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중심에 시조가 있다. 시조의 효용성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退溪 李滉(1501~1570)의 <陶山十二曲跋>이다. <陶山十二曲>은 퇴계 성리학의 요체인 ‘溫柔敦厚’의 정신을 시조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跋>에서는 퇴계가 온유둔후의 효용을 위해 ‘시조’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시조가 우리말 노래로서 효용성이 강한 장르라는 것이다. 요컨대 시조는 효용성이 강한 장르이고, 가족관계를 노래한 시조 또한 가족들 간에 지켜야할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한 남성과 여성이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된다. 시조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결합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유학에서는 5종의 인간관계에 주목한다.²⁸⁾ 5종의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를 해당되

22) 조선전기에는 혼인에서는 男歸女家婚의 관습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면 남성은 여성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재산상속이나 제사를 모심에 있어서도 長子 상속이 아니라 딸을 포함한 모든 자식들이 균등 상속을 하였다. 그랬던 것이 조선 중기로 접어들고 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결혼이 親迎制로 바뀌고 상속이 장자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등, 가족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3) 이순구, 앞의 논문, 135쪽.

24) 각주 14)참조.

25)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학』 창간호, 한국여성학회, 1985. 18~23쪽.

26)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 12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5. 12~19쪽.

27) 훈민시조가 효용의 가치를 주로 한 다는 것은 시대에 따른 내용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 純祖朝의 인물인 趙槩의 <훈민가>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 또한 16~17세기 훈민시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28) 15세기에는 군신, 부자, 부부의 윤리질서가 강조되었고, 16세기에는 여기에 장유와 봉우의 관계가 포함되었다. 즉 전자는 三綱이라는 이름으로, 후자는 五倫이라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진, 앞의 책, 88~95쪽 참조.

는 것은 세 가지로, 인간관계 내지 사회관계의 근본은 가족에서 비롯됨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간의 윤리가 좁게는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덕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와 국가의 기틀을 바르게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훈민시조 가운데, 특히 가족을 노래한 ‘가족시조’²⁹⁾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시조에 나타난 모습이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가족상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가족의 형태에도 다양해졌고 서로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과거의 삶이 자신을 가족과 가문의 틀 안에 개인을 편입시켰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는 각자의 개성이 모여 가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대로 오며 가문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의 변화는 있어왔지만, 가족이 부부와 부자와 형제관계로 이루어지며 또 그들 간에 서로 존중과 공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고금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족시조에 나타난 가족을 모습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29) 가족을 노래한 일련의 시조를 ‘가족시조’로 명명하였다.

■ 참고문헌

『論語』

『大學』

『中庸』

박을수편, 『韓國時調大事典』, 아세아문화사, 1992.

심재완편, 『歷代時調全書』, 세종문화사, 1972.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9.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김미영, 「陰에 부과된 私적 특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주자학의 가족윤리 중심으로-」, 『철학』 72권, 한국철학회, 2002. 77~98쪽.

김미영,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三從之道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3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47~71쪽.

박성의, 『송강·노계·고산의 시가문학』, 현암사, 1968.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학』 창간호, 한국여성학회, 1985. 7~43쪽.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83~115쪽

신연우, 「주세붕에서 정철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은지논총』 4집, 은지학회, 1998.

윤성근, 「훈민시조 연구」, 『한메 김영기선생 고회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1.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 12집, 이화 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5, 11~38쪽.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19~142쪽.

이종진, 「김상용론」, 『속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491~516쪽.

-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조태흠, 『훈민시조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조태흠, 『유교이념의 시적 변용고-훈민시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9집, 문창어문학회, 1990, 349~363쪽.
최석만, 『The Problem of Socioal Order in Confucianism (유교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문제)』,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59~77쪽.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The Family and Family ethics which appears in Sijo

-Focused on the 16~17th Centuries Hoonmin Sijo-

Kim, Sang-jean

Chosun-dynasty embraced Confucianism society as the family center. The Sijo was the literature which Chosun-dynasty was representative. This research is the family and family ethics which appears in Sijo (especially 16~17th centuries Hoonmin Sijo). The contents divides on a large scale at two. First is a work analysis. With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elder brother the younger sibling, the husband and the wife analyzed the song one work.

In afterwords, with character investigated a work analysis about family ethics. This gets divided at two. The one is 'Hyo moral emphasis(효행의 강조)', the other is 'Respectability and harmony'. The 'Hyo moral emphasis' is the father and son relationship and brotherly relationship appears in the song one Sijo. These Sijo speaks the friendship of the sibling and is one blood line and emphasizes. This means, between the sibling being joined together living well finally the 'Hyo' back, 'The respectability and harmony' are mainly discovered from the Sijo which makes the husband and the wife with subject.

Generally, one family relation as perpendicular is being recognized a Confucianism ideology with character. But, the family appears in Sijo, aims to harmony. Of course, the features of the family which is expressed in Sijo, will not be the features of the family which is actual. Because, these Sijo works in goal of edification, to present the proper family as a matter. But, with this research O-Ryoon(五倫)'s aim proper value and should be to think the aspect where it is embodied in 'Family Sijo'.

Key Words : Hoonmin Sijo(훈민시조), Family ethics, Hyo moral emphasis(효행의 강조), Blood-line, Respectability and harmony, O-Ryoon(五倫), Family Sijo(가족시조),